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현대인 풍자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소과

이 희 정

「현대인 풍자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 월

성신 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소과

이 희 정

인 준 서

이희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2007년 월

성신 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과학과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사회로 인해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물질만능의 시대는 삶의 편리함과 동시에 인간의 사고를 더욱 음울함과 절망적 존재로 가치를 전도시키는 병리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현대인은 더 이상 정신에 의해 물질을 지배하고 사용하며 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하나의 객체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점차 포기하게 되고 생활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타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점점 인간이 획일화되고 소외되어가는 현실을 맞이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은 일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불안한 인간심리 현상은 정신적으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날카롭게 반영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모순과 인간 소외에 따른 현대인의 실상과 사회상 또한 예술 작품의 주요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의 위기문제는 예술을 포함한 철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반성적 자각을 통해 위기극복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자아의 정체성의 발견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물음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의 관계성

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관적 관점으로 포착되어진 현대인의 일상에 나타나는 인간의 심상을 은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회적 현실로부터 극복 의지를 보이하고자하나 일상적인 여건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좌절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기괴한 행동을 한 신체적 구조를 표현하였고, 비장(悲壯)미적인 요소를 내포하기 위해 동판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조형물로 표현된 인간 행동의 재현을 통하여 현대인이 느끼는 반복된 일상에 인간성 상실을 경험하고, 현대 사회현상의 인간상황을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인식의 폭을 넓히며, 좀 더 긍정적인 갈등해소를 모색함으로써 인간성의 회복을 통한 인간적 삶의 역할을 재인식 하고자 하였다.

본 논고 서론과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의 현상 속에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와 현대인의 일상에 대해 재조명하고,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일상 속에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이 부각되어져 상징화된 이유와 과정을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유와 그 표현들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여 본인이 추구하려는 사실성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작품에 대한 성립과정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의 배경

1) 현대사회 속 인간성 상실 3

2) 현대인의 일상성 4

2. 조형적 표현의 의미 7

III. 작품 분석 11

IV. 결 론 31

참고문헌

Abstrac

I. 서 론

인간은 단순히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체라기보다는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출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공간을 활용하고 도구를 이용하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단기간의 급격한 변모는 많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많은 개인적 자유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대인은 도덕질서의 붕괴, 황금만능 주의적 사고의 범람, 소외의식의 대두, 감성적 찰나주의와 향락주의의 횡행 등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쟁점화 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때나 인간의 편익을 위해 창출된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인간의 기계예속과 비인간화 현상을 빚어내는 자의적 소외를 자처하고 있다.

이토록 사회를 통괄했던 주체자인 인간의 위치가 현실의 삶에 사회적 곤란과 기능적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괴리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문명과 인간의 역할이 전도된 가치체계 내에서 인간은 개인적 사고에 있어서도 제약을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은 현대인의 의식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내적인 자의식은 고립되고 무력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자의적인 사회활동에서 빛어지는 일종의 비극적 아이러니 아니겠는가?

본인의 작품에서 일상성은 본인이 생활하고 경험하는 세계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통로가 된다. 본인이 제시하는 일상성을 통해 대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사는 현시대를 의미 있게 사색 해 보는 과정들을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일상성의 의미와 작업에

있어 그러한 과정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 부조화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주변도구의 모습은 과장되고 모난 모습을 하고 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인간의 불안한 모습을 담고자 함이고 그들의 절박한 일상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의 배경

1) 현대사회 속 인간성 상실

물질적 풍요는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가 뿌리를 제공했지만, 인간은 물질이라는 무쇠의 우리 속에 갇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제 인류는 물질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은 주체로서 정신에 의해 물질을 지배하고 사용하며 그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정신적 측면의 망각 또는 무감각 속에서, 소유로서의 삶에만 일방적으로 집착하여 물질적 재물에만 관심을 가져 재물을 소비하고 소유하는데 급급해하는 삶을 살아간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불안해하며 점점 더 고립화된다. 현대인은 물질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이 증가하지만, 인간은 개인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자연을 지배하는 새로운 더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냈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도구들의 그물 안으로 휘말려들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도구들에 의의를 부여해 주는 목적-인간자신-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된 한편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 인간은 물질에 관한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인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간 내부에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풀어놓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¹⁾

오늘날의 인간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유, 즉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의 해방이라는 의미의 자유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 즉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고 있다. 현대인에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이러한 자기규정의 자유로부터, 실존함으로부터 회피하여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재물로의 도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개인주의 팽배와 배타적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 숭배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기술적인 변화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피폐해진 모습과 그들의 해소 창구를 제공하고픈 마음에서 시작된다.

특히 현대인의 사회성을 투영하여 기괴하고 우스꽝스런 모습의 인간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현대적 인간의 일상에서의 자유의지를 담고자 하였다.

2) 현대인의 일상성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실 속에서 특별한 어떤 것, 보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하루하루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들을 관찰하는 데에는 인색 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 관심 있게 보

1)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철학과 현실사 1995, p.73

지 않는다. 일상의 의미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다. 거대한 산업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삶의 궁극단위인 일상이 무시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시간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게 보이고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하찮게 보이기까지도 한다. 그런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지만 결국은 놓지 못하는 끈과 같고 현대인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의 일상성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의 현대인에게는 이러한 일상마저 도시적 특징으로 귀결되어진다.

일상성과 현대성은 같이 공존하며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일상 속에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상 속에서의 사색을 통해 이루어진다.²⁾ 삶의 의미는 보이는 일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보이지 않는 면에 있다. 일상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사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³⁾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들 생활의 일상성을 마치 그것이 자연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살아왔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더욱 일상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광범위한 전개, 미적인 것의 일반화 등의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적 생산물의 총체적 실현과 표상의 장소로서 일상생활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상이 지배적 개념과 실천 기준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현대 사회에 와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사회적

2) 최중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65.

3)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서울 : 푸른숲, 2000), p.107

성격의 틀 안에서 규정화되고 만들어지는 일상은 이 세계의 빛과 어둠, 공허와 충만함, 힘과 허약함이 투사되는 평면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일상의 경험과 소재들을 통하여, 일상에서부터 그 고유의 창조적 행위와 미완의 작품을 끌어내기를 기도하며 그로써 존재의 깊이를 찾고자 한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은 해야 할 것은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의 상징으로써 가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인간 경험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주관적인 단계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육체, 사고, 감정, 욕망, 기쁨, 고통, 일종의 미적이고 조직적인 감정 같은 개인적인 마음 상태들을 직관 할 수 있다. 혹은 덜 주관적으로는 사람이나 사물과의 개인적인 연대성이나 접촉 같은, 세계 내의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모두 초월하여 눈에 보이는 사물의 구성, 자연의 진행, 동물의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 같은 현상학적 세계의 가치 표현적 특징에 몰두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관심영역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있어서 매력의 대상들은 느껴진 특질인 것이다. 예술이란 수단을 통해 본래적인 표현적 특질들을 선택하고, 강조하고, 변형시키고, 결합시키며, 종합한다.⁵⁾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예술은 존재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진정한 예술은 삶에 적극적인 사고를 제시하고 현실 속에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에 표현되는 이미지는 현실의 경험적 산물이 되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개인적 체험 등 현실에서

4) 김용석, 위외책, p. 87.

5) Melvin Rader and Bertram Jessup,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역), 이론과 실천, 1978), p.194

파생되는 여러 체험을 반영하는 역할로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형적 표현의 의미

소재는 작가가 의식하는 의도적 변용을 목적으로 하든 선택한 재료 자체를 직접 제시하든 간에 그 물질 또는 비(非)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나 상징성 그리고 재질 등의 외적 특성의 고려가 동시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작가의 의도하는 바와 사물이 가진 특성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써 작품은 독립된 하나의 의미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본인이 표현한 작품에서의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육체로 표현되어진다. 인체란 영혼을 내포하고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내면 감정을 외적 모습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내면의 감정은 인체 형상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표현된 인체 형상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기에 인체는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임은 틀림이 없다.

본인의 작품 제작에 있어서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소재로 과도한 표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것은 기존의 낱말을 선택해서 농담을 만들 듯이 본인의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소통언어에 대한 이미지의 불완전성을 일상 이미지 속에서 부각시켜 일상의 소통체계에 대한 현실의 환기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대개 풍자나 해학의 의미를 보여 주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관객으로 하여금

6) 한국문화교류연구회 편, 《해학과 우리》 시공사 1998, p.127

통쾌함을 주며, 동시에 실제의 대상자에게는 원래의 상태로 변환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제시하고 보여주고 끝나는 일차적 과정 뒤에 호소 내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에서 의도하는 것은 『일차적(시각적) 제시에서 이차적으로 메시지를 동반한 관객의 사고의 변화』⁷⁾와 주제의식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의 조직 원리는 항상 폭력과 억압을 제도화하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⁸⁾는 지적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운영의 방법이 정세해지는 가운데, 대중조작과 지배의 논리가 발달할수록 더욱 명료한 구체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개인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으며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구성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은연중 우리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방관하고 있기조차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음미하고 대응 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묘사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작품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생활상을 풍자적 대상에 두고 현대사회에 느끼는 소외감과 억압으로부터의 모습을 과도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작된 작품은 단순히 관람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유머적 표현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 생활적 도구 등 사회적인 것들을 바라다보는 논자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작된 작품은 단순히 관람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유머적

7) 박영원, 《시각적 유머의 생산과 의미작용에 관한연구》(석사학위청구논문, 홍익대학교 2001), p.72.

8) 이호근 저, 《시장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 1992, p.128.

표현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 생활적 도구 등 사회적인 것들을 바라다보는 논자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보이는 표현에 있어 중점이 되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의미의 공격이며, 이러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유머가 있는 웃음과 정신적 정화기능으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상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작품 주제가 되는 대상은 주변의 이야기지만 사회적으로 모순된 상황이나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들도 이를 통해 다뤄진다 그들의 눈은 『인간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인간힘을 쓰는 존재들이며 규율화 되고 굶실거리며 눈치 보는 관료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도시의 현대인의 샐러리맨의 모습이다.』⁹⁾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의 사회 현상 속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나 가치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 행복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선택받은 자와 못 받는 자의 대립 구조로 각인되고 판단되어 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체를 이용하여 과장되고 왜곡된 변형을 통하여 현대적 인간의 복잡한 심상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구비해 형상화된 인간상을 보여주기보다 자아 분열적이거나 일탈적이면서 굴절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소외와 갈등, 냉소, 탈출, 휴식, 무력감,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 이것은 본인의 작품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 의해 개인이 파괴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작업에 나타난 인간상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의 인물은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한

9) 로버트 휴즈, 《새로움의 충격-모더니즘의도전과 환상》, 최기덕 역, 미진사 1991,p.56.

것인데 혼자 고립되어 다른 것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길고 끝없는 얽히고 무거운 끈의 형태를 잡고 항상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모습처럼 보인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고뇌를 함축하고 권력과 힘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드러내기도 하는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하는데 있어 절제보다는 역동적이고 극도로 과장되어 보이는 신체를 통해 감정을 철저하게 드러내고자 함으로써 극도로 불안한 인간의 심리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근본적인 의미를 두자면 인간 자체의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의미를 구체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역설적 의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일상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행동적 묘사와 본인 작품을 통해서 가치를 반영하고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서의 해석을 가지고자 함이다. 또한 도구의 재료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메마르고 차가운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동판이라는 금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중층화 시키고자 하였다.

Ⅲ. 작품 분석



[작품 1] 아...힘든 하루가 되겠군...350x300x60 동판

[작품 1] 아...힘든 하루가 되겠군...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350x300x6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은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적인 현상에 인간성 상실과 일상에 의미를 두고 현대 개인 누구나에게 있을법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나고자, 문을 여는 모습은 새로운 출발을 갖는다. 일상에서의 지극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예상 못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과도한 행동으로 문을 여는 모습을 표현하고 형상화하였다.



[작품 2] 어어! 300x1000x400(자전거) 동판

[작품 2] 어어!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300x1000x40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 작품은 이 시대의 현대인의 모습을 미적대상으로 두어 관찰하고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자전거 두 바퀴에 본인의 발을 맡긴 채 짊어 지어야 할 생계에 대해 쉴 틈도 없이 달려온 현대인은 모습 상을 그려내기도 하고, 그로 인해 예상 못하는 앞길의 낭떠러지 끝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현대인의 생명부지와 관련지어 형상화하였다.



[작품 3] 내가 아니고 너야 이부장 400x160x350 동판

[작품 3] 내가 아니고 너 야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400x160x350(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은 현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특정한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을 빗대어 나타낸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사회의 구조이고 서로를 밟고 밟히며 세상을 살아왔으며, 본인 작품의 캐릭터는 책상과 의자보다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그 위에 서려는 야심 찬 욕망에서 구상화하여 형상화하였다.



[작품 4] 이부장 당신 자리는 어디냐! 400x250x150 동판

[작품 4] 이부장 당신 자리는 어디냐!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400x250x1500(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은 작품에 캐릭터와 의자를 표현함으로써 직장 내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을 갖게 하였다. 사회생활의 실적으로 인한 경쟁에서 밀려나 자신의 자리의 위기감을 가져 어디에도 앉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기도 한다. 본인은 인물보다 의자를 과장되게 크게 표현함으로써 나약한 존재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인간의 행동을 구상화하여 표현하고 형상화 하였다.



[작품 5] 이부장 ! 어디있어? 300x200x400 동판

[작품 5] 이부장 ! 어디있어?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300x200x400(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인간은 현실부터의 도피적 행동을 한다. 현대인은 직장 내의 스트레스로 벗어나려 화장실의 공간에 숨어들지만 인간의 사회 구조가 그를 가만 두지 않는다. 본인은 이부장과 변기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권력에 의해 허겁지겁 나가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6] 내 밥그릇이야 400x150x350 동판

[작품 6] 내 밥그릇이야

제작년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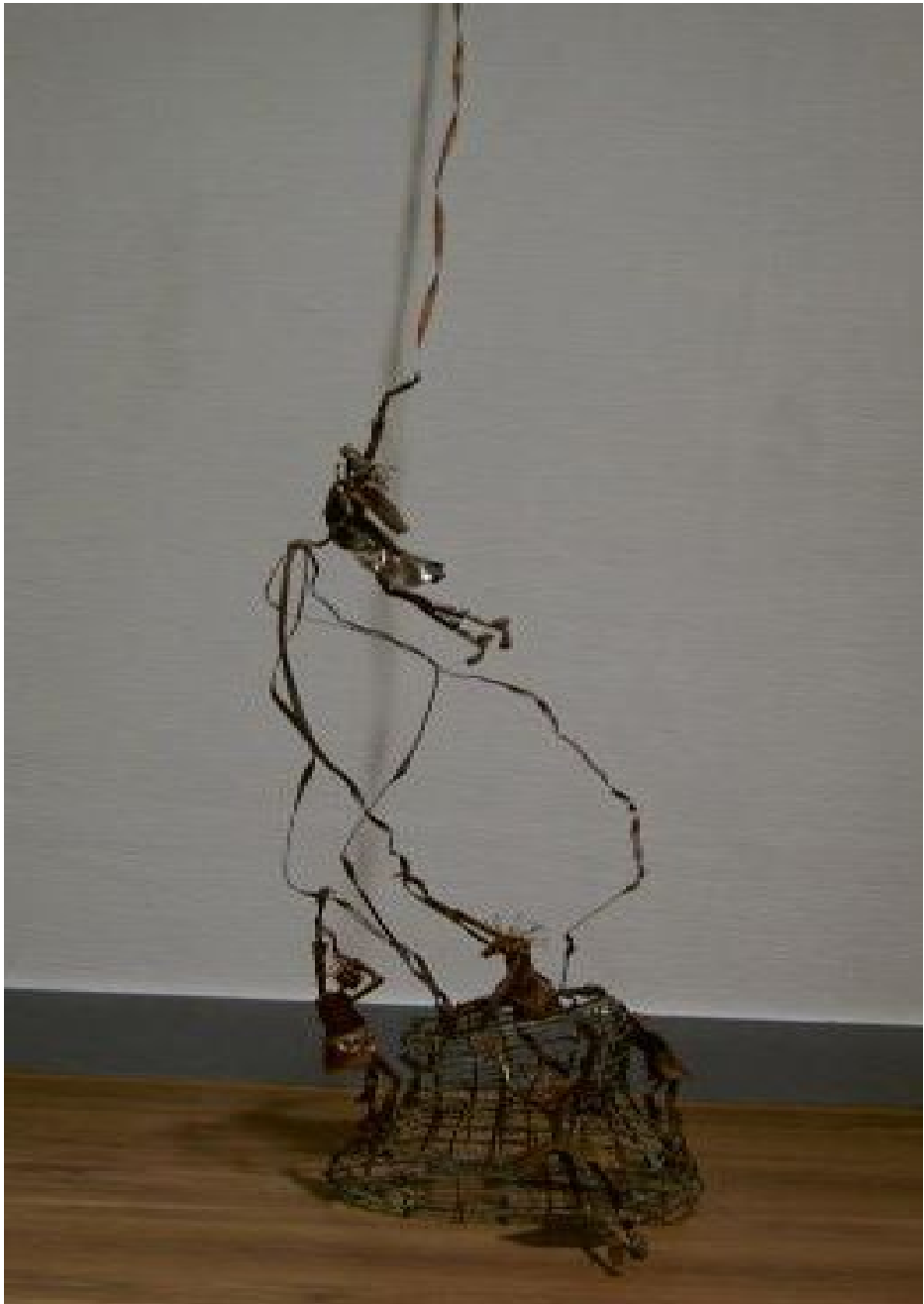
작품크기: 400x150x35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현대사회의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한다. 인간사회에서 그 대상에 관계없이 서로 경쟁을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개인의 표현에 있어 동물을 인격화하여 이부장과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7] 어느 줄을 잡을까? 400x400x2000 동판

[작품 7] 어느 줄을 잡을까?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400x400x200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이 시대에 성공을 하려면 권력층에 줄을 서야 한다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작품화 하였다. 그 대상에 관계없이 각자가 성공하려고 줄을 올라타며 올라가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8] 날려버리고 싶다 400x200x300 동판

[작품 8] 날려버리고 싶다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400x200x30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은 사회의 여러 병폐적인 현상에 의미를 두고 현대 개인 누구에게 있을법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새충을 힘껏 당기어 현대인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자 표현하고 형상화하였다.



[작품 9] 너무 힘든 하루였다300x150x400 동판

[작품 9] 너무 힘든 하루였다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300x150x40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의 미적 대상인 현대인의 모습을 가로등에 기대어 표현함으로써 현대 사회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지친 인간의 형상을 이미지화하였다.



[작품 10] 휴식을 취하고 싶다. 150x250x250 동판

[작품 10] 휴식을 취하고 싶다. 150x250x2500 동판

제작년도: 2006

작품크기: 300x150x400 (mm)

제작방법:

소재에 대해 관찰한 후 구상 및 스케치를 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로 동판을 선택한 후 구상 되어진 스케치 위주로 절단 및 가공한다. 절단되어지고 가공된 동판은 용접을 통해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 나아간다. 용접을 끝낸 후 그 주변부를 정리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내 용:

본인의 미적 대상인 현대인의 모습을 사다리를 타고 위패로 들어가는 상황적 표현에 있어 나약한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서 새로운 안식을 얻는 그릇 된 생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은 현대 사회로부터의 받은 많은 고통의 해결 방안에 죽음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표현하고 이미지화하였다.

IV. 결 론

인간의 삶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와의 상호적인 연관성 속에서 지속되었다. 현대에 와서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삶은 윤택해 졌지만, 인간의 일상적 삶의 내부적 모습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인간은 대량 소비 사회 안에서 반복적이고 기계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에 대해 갈증을 느낀다.

본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가지화되어, 인간의 상실로 비인간화 된 현대인의 모습인 일상적 삶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현대사회에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소모품처럼 기계화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동판을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이 시대에 소외 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본인 작품은 일상으로부터 현대 사회인의 소외되고, 그것에 벗어나려는 현실적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비인간화된 존재에 대해 삶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채 저항하지만 결국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본인은 그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므로 조금이나마 현실인식의 폭을 넓히고, 긍정적인 갈등해소로 풍자적 요소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역할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철학과 현실사 1995, p.73
- 2)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지와 사랑,2000,p.65.
- 3)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서울 :푸른숲,2000),p.107
- 4) Melvin Rader and Bertram Jessup,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역), 이론과 실천,1978, p.194
- 5) 로버트 휴즈, 《새로움의 충격-모더니즘의도전과 환상》, 최기덕 역, 미진사 1991,p.56.
- 6) 한국문화교류연구회 편, 《해학과 우리》 시공사 1998, p.127

- 7) 박영원, 《시각적 유머의 생산과 의미작용에 관한연구》(석사학위청구논문, 홍익대학교 2001), p.72.
- 8) 이호근 저, 《시장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 1992, p.128.
- 9) 로버트 휴즈, 《새로움의 충격-모더니즘의도전과 환상》, 최기덕 역, 미진사 1991,p.56.

ABSTRAC

Satiric Representation of Modern People

lee, hee jeung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society has shown a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civilization and by the means of industrial society people enjoy richness in their material lives. However as the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materialism,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a pathological phenomenon that conducts human thoughts to a despair and melancholy.

Modern people no longer exist as the almighty with all the psychological power over decisions and the usage of materials. Instead, as the member of society, they tend to resign their wills and be helpless. The dignity of mankind has been lost as there are less communications and they face the brutal reality of isolation with the standardization.

Therefore, an anxious human psychological phenomenon from daily life of modern people are revealed by contemporary artists whom are mentally sophisticated and sensitive. Also the contradiction in modern society and the isolation of mankind as the result of reality and the socia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ain topics in contemporary arts. The danger in current time beings are studied in various other fields such as philosophy and sociology, all in search of answer to self-realization and the values in

humanity.

In my work, values in existence of manki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ggles mankind face in their daily life are revealed. A psychological image revealed in daily life is captured by subjective point of view of the research and they are symbolically revealed with metaphorical expressions.

On the other side, body figures in strange actions are shown to reveal failure due to conditions in everyday life as opposed to will to overcome the reality. A copper plate is used as the main object to contain features of tragic beauty.

Through the reproduction of human actions in formative arts, loss of humanity in daily life of mankind is reinforced. In attemp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erms of phenomenon of the modern society with the relationships in everyday life, the range of recognition extended. By searching more practical solutions, the role of humane life is restudied.

In the introduction and the body of the thesis, issues on loss of humanity in modern society and daily life of mankind are redefined and how instable actions of mankind is revealed and symbolized in the work are discussed. Finally, by analyzing the reason why such body images are formed, and also their expressions and the meanings they contain, the truth the artist is trying to obtain is revealed. Also the process of the creation and the meanings are described in details. Research on Satiric Representation of Modern People

Modern society has shown a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civilization and by the means of industrial society people enjoy richness in their material lives. However as the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materialism,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a pathological phenomenon that conducts human thoughts to a

despair and melancholy.

Modern people no longer exist as the almighty with all the psychological power over decisions and the usage of materials. Instead, as the member of society, they tend to resign their wills and be helpless. The dignity of mankind has been lost as there are less communications and they face the brutal reality of isolation with the standardization.

Therefore, an anxious human psychological phenomenon from daily life of modern people are revealed by contemporary artists whom are mentally sophisticated and sensitive. Also the contradiction in modern society and the isolation of mankind as the result of reality and the socia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ain topics in contemporary arts. The danger in current time beings are studied in various other fields such as philosophy and sociology, all in search of answer to self-realization and the values in humanity.

In my work, values in existence of manki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ggles mankind face in their daily life are revealed. A psychological image revealed in daily life is captured by subjective point of view of the research and they are symbolically revealed with metaphorical expressions.

On the other side, body figures in strange actions are shown to reveal failure due to conditions in everyday life as opposed to will to overcome the reality. A copper plate is used as the main object to contain features of tragic beauty.

Through the reproduction of human actions in formative arts, loss of humanity in daily life of mankind is reinforced. In attemp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erms of phenomenon of the modern society with the relationships in everyday life, the range of recognition extended. By searching more practical solutions, the role of humane life is restudied.

In the introduction and the body of the thesis, issues on loss

of humanity in modern society and daily life of mankind are redefined and how instable actions of mankind is revealed and symbolized in the work are discussed. Finally, by analyzing the reason why such body images are formed, and also their expressions and the meanings they contain, the truth the artist is trying to obtain is revealed. Also the process of the creation and the meanings are described in details.